

## “종교인 비과세는 직무유기”

### 시민단체, 국세청장 고발

서울중앙지검은 8일 ‘종교인 자유실현 시민연대’(종비련)가 “종교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고발함에 따라 이를 공무원 관련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반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자료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국세청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받아 현재 과세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야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비련’은 지난 4일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 “선거구민에 태극기 배부 이름 새겼다면 기부행위”

### 서울고법 판결

출마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준 것을 알 수 있도록 금품 등을 전달했다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홍성무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태극기를 나눠줬다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의 기소와 1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사회봉사단체 서울 모지역 위원장 김모(43)씨와 사무국장 이모(52)씨에게 각각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에게 현충일을 앞두고 태극기 무상제공 행사를 하면서 김씨의 이름이 명시된 태극기를 나눠주거나 김씨가 제공한 것을 아는 상대방에게 태극기를 나눠준 것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열거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는 후보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일정한 신분 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기부행위의 주체는 금품 제공자의 명의, 실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민에게 나눠준 태극기 케이스에 김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김씨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도 주민들은 이를 김씨가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선거 사무기기·결혼식 하객·명품 ...

# 광주·전남 ‘빌려 쓰기’ 열풍

### 부담 적고 처리 간편...렌트산업 급성장

5·31지방선거 사무기기·결혼식 하객·명품·인테리어 용품 등을 대여해 쓰는 ‘빌려 쓰기’ 열풍이 거세다.

열린우리당 광주시의원 예비후보인 A씨는 최근 사무용품 렌탈 회사를 찾았다. A씨는 이곳에서 책상, 회의 테이블, 전화기, 소파, PC 3대 등 30가지가 넘는

사무용품을 빌렸다. 1개월 사용료는 390만원. 실제 구입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A씨는 “적은 돈으로도 필요한 물건을 골라 쓸 수 있고 A/S도 해주니 관리도 쉽고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사무실용 사무기기를 빌려주는 렌탈 전문 회사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 렌탈엔조이(www.rentaleny.com)는 최근 ‘선거사무소 집기 임대료 할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데스크PC와 노트북PC는 7만~8만원, 사무용 책상이나 레이저 복합기 등도 4만5천~8만원만 내면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다.

‘광주 종합렌탈’ 김석균(33) 대표는

“광주·전남 렌탈업체는 타지역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선거철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맞아 하객 대여 서비스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하객이야기’(http://www.gueststory.com)의 경우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매년 20~30% 정도 늘고 있다. 이 회사 이상우(34) 실장은 “주로 신부 측에서 5~10명의 하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결혼철을 맞아 하루 평균 30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명품대여 사이트 ‘p.fox’(www.pfox.co.kr)에는 매일 100명 정도가 명품샵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입한 회원만 1천여명에 달한다. 회원들은 9번 빌리는데 28만원, 10번에 38만원, 12번에 58만원의 회비를 각각 내고 있다.

이 회사 기획이사 김성년(48)씨는 “지난해에 비해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올해를 기점으로 렌탈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족관·식물·그림 등 인테리어 용품 대여와 30대 중·장년층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명품 오토바이 빌려쓰기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이상호(41) 부교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좇는 소비자의 코드와 일치하기 때문에 ‘빌려 쓰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장병들 ‘부모님 발 씻어주기’ 호도

육군 31보병사단(사단장 이봉원 소장) 장병들이 8일 ‘어버날’을 맞아 부대를 방문한 부모님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 31사단은 이날 장병 부모 100여명을 초청, 발마사지·안마·꼭지점 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경찰, 오랜만에 ‘활짝’

### 노숙자 살해·택시강도 사건 신속 해결

#### “이젠 편의점 강도 검거에 주력 해야죠”

경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 그동안 편의점 강도도 시달려 온 강력 형사들의 얼굴이 오랜만에 활짝 피었다.

광주 북부경찰은 8일 잡자리 다름을 벌이다 노숙자 조모(51)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살해)혐의로 노숙자 배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5년전인 지난 2001년에도 광주전 인근에서 범행수범이 유사한 노숙자 살해사건이 발생한 뒤 미제사건으로 남았다는 점에 긴장하고 강력팀 41명을 모두 투입해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 사건이 노숙자 간 원한 관계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광주전 일대에서 생활·기거하는 노숙자들을 상

대로 발품을 팔아가며 잠복과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광주전 인근을 무대로 생활하는 노숙자 가 총 28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생활상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게 됐다. 특히 수사 중 남편에게 버림받아 사망 신고된 뒤 30여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노숙생활 하던 노숙자 조모

(52)씨가 호적이 없는 점을 알고 호적을 되살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또 이날 발생한 택시강도 사건을 신속하게 대처,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다. 강경경찰은 8일 새벽 1시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길에서 S택시회사 광주 60바 18XX호(운전자 이모·51)를 타고 강

진으로 향하던 중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윤모(44)씨를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신고접수와 함께 수사과장 등 형사, 타격대, 자율방범대 등 20여명을 동원해 예상 도주로에 잠복, 피의자를 붙잡았다.

전남지방경찰청 김문호 강력계장은 “일선 경찰 강력 형사들이 모두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각종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검거하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며 “차질 미중에 빠질만한 사건도 잘 해결한 만큼 이제는 편의점 강도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6823) 김중두



연예2차 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채 | 총 353명 | 3534명  
문의 (062)366-4220

### 예비후보 사무실 절도범 검거

여수경찰은 8일 여수시 국동 K은행 2층 모 시의원 예비후보 사무실에 침입, 노트북 컴퓨터·녹음기 등을 훔친 이모(51)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 성폭행범 차 바퀴에 진흙 묻어 ‘덜미’

○...중간고사 공부하던 중 편의점에 과자를 사러 가던 여고생 2명을 납치,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가 경찰에 덜미.

○...여수경찰에 따르면 정모(34)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50분께 여수 모 야파트 앞에서 H(15)양 등 여고 1년생 2명을 자신의 화물차에 강제로 태운 뒤, 인근 공사장 등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는 것.

○...경찰은 지난 6~7일 광주·전남에 많은 비가 내려 범인의 차 바퀴에 진흙이 붙어있을 것으로 추정, 인근의 화물차를 모두 정밀조사한 끝에 정씨를 검거.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신풍제약주식회사

# 버미플루 1알로

## “환히 웃는 우리가족”

**1회 1정 먹는 구충제 - 버미플루**  
회충, 오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번에 없애줍니다.

복통, 황문주위의 가려움,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은 인체의 장내에서 피를 빼앗아 가며, 식욕부진, 위통, 설사, 빈혈의 원인입니다. 1회 1정으로 회충, 오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구충제 - 버미플루 이제부터 기생충으로 인한 가족의 질병은 버미플루로 지켜주세요.

1회 1정 복용하는 구충제  
**버미플루 1정**

※본 광고의 목적은 의약품의 효능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본 약은 의약품이 아닙니다.